

# 한국경제

2014. 02. 12.

‘반도체 올림픽’ 주관 ISSCC  
유회준 교수, 2차 회장

유회준 KAIST 전기·전자공학과 교수(사진)가 나흘 일정으로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고체회로학회(ISSCC)에서 아시아 대학 최초로 학회장에 선임됐다.



ISSCC는 매년 2월 개최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반도체 분야 학회다. ‘반도체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이 학회는 전 세계 3000명 이상의 반도체 기술자가 모여 나흘간 기술을 뽐낸다. 인텔이 최초로 중앙처리장치(CPU) 제품을, 삼성에서 처음 메모리 기술을 발표한 곳으로도 유명하다.